광주 저소득층 주거복지 늘린다

광주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추진

보금자리·임대 주택 2600가구 건립
사회보장구역 지정 마을공동체 형성
2019년까지 5년간 2833억 투입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광주도시공사의 이번 재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16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와 소규모 마을공동체 회복을 핵심으로 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건립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해 저소득층과 소득이 더 높은 층이 같은 지역에서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의 역사성 보존과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재생 모델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도시재생 대학 운영 등 지역의 재생 일꾼 양성도 주요 목표다.

앞으로 2019년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 공사 재원 등 28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오는 2019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해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 24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200가구를 건립하는 등 5대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또 서구 일원 5만여㎡에 문화와 결합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재생사업'을 추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시아문화수도 연계사업 추진 등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빈집과 폐가가 밀집한 노후지역을 민·관이 협력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사회통합형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 경우 도시공사는 토지투자와 사업관리를, 민간사업자는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등 상생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협의해 남구 월산동 덕림지구에 청년세대를 위한 공동체 주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주거시설에 문화, 취사, 휴식 등의 공간을 확보해 2~3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어 하우스'의 개념이다.

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과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심재생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건축과 법률, 인허가 등 3개분과 15명의 전문가로 도시재생자문단을 구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무료 상담과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민선 6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자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소·중견기업 '명품강소기업'으로

광주시 30개 기업 선정 자금·마케팅·컨설팅 지원

광주시가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100대 명품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0개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시는 16일 "오는 10월 6일까지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5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가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과 기업진단 컨설팅, 각종 기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받고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등 기업중심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 30개 명품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개의 명품강소기업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선정된 30개 기업들은 기업 진단을 마무리하고 맞춤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해지는 '119 구급대'

광주소방안전본부, 영상 통한 전문의 의료지도 등 시범사업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6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조선대병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로 구성한 장비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의료지도 서비스는 구급차 2대 동시 출동, 영상통화장치를 통한 전문의 의료 지도, 구급대원의 전문 심장 소생술(약물투여, 제세동, 정맥로확보 등) 시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대에서 사업의향서를 받아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을 확정해 광주시를 포함한 4개 지역 19개 소방서와 9개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한다.

한편 시는 5개 소방서 28개 구급대와 조선대병원이 참여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병원 전 심폐소생술 팀워크 전문 교육과 웨어러블 장비 시연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장 단계부터 적극적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구급대원의 업무 확대 등 119구급업무 영역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빵기능사 되고…사랑의 빵 나누고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가 운영하는 '제2기 제빵기능사'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교육생들이 식빵, 단팥빵, 베이글 등 제빵기능사 과정을 실습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직접 만든 빵을 서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하는 등 각종 재능기부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주여성발전센터 제공〉

"여성이 행복한 직장 만듭시다"

광주시, 11개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 9천만원

광주시는 16일 "여성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기업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2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별도)의 여성 전용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 ㈜인아, ㈜현대하이텍, ㈜티엠씨, ㈜공영물류, 광주잡코리아, (주)대경보스텍, (주)사랑방미디어, (주)에스디전자, 전방(주), 화신산업(주), 대영전자(주) 등이다.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휴게실, 샤워실, 수유실 등 여성 전용 편의 및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9개 기업에 4억11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고용 기업과 여성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